공정위, 韓·뉴질랜드 및 韓·濠 경쟁정책협의회 참가
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4일(수)~9월 9일(화) 동안 뉴질랜드의 웰링턴과 호주의 캔버라에서 韓·뉴질랜드 및 韓·濠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. 동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전윤철(田允喆)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희복(姜熙復)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부단장과 김병배(金炳培) 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등이 참석하였으며, 뉴질랜드 측에서는 존 룩스톤(John Luxton) 상무성 장관과 알란 볼라드(Alan Bollard) 경쟁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간부들이, 호주 측에서는 알란 펠스(Allan Fells) 소비자 경쟁위원회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다.

동 회의에서는 양국 경쟁정책 당국간의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. 동 회의에서는 최근의 경쟁정책 추진동향과 경쟁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및 양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등이 주제로 진행되었다.

또한 동 협의회와는 별도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력과 가스 및 정보통신분야 등에서의 규제개혁 경험 및 추진동향 등을 파악하고,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.

한·뉴질랜드와 한·호 경쟁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◎ 최근의 경쟁정책 추진동향

- 공정경쟁 질서의 강화를 위해 '96년 12월에 개정한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
-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에 대한 정비방안 등 경쟁촉진형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

◎ 경쟁정책분야의 국제협력

-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의 국제카르텔 협정과 WTO 경쟁정책분야 실무 작업반(Working Group)에서의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작업 추진과 관련한 입장 등을 설명하고, 양국 경쟁당국간의 상호협력 방안을 제안

◎ 양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

- 우리 나라의 규제개혁 추진방안과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분야별 규제개혁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